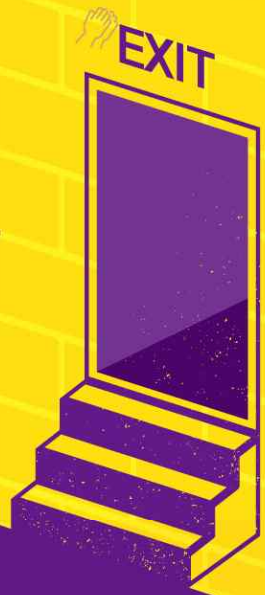
제11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민주적인교회, '벽' 앞에 서다

일시 2018년 4월 29일(주일) 10:00~16:00

장소 복사골문화센터(문화재단/ http://www.bcf.or.kr)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상동) / 032-328-0692(예인교회)

대상 '건강한작은교회연합 모든 교회' 및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

주최 건강한작은교회연합

너머서교회 | 더작은교회 | 더함공동체교회 | 새맘교회 | 새숨교회
아름다운양지교회 | 언덕교회 | 예인교회 | 징검다리교회 | 교회개혁실천연대

건강한작은교회연합(건작연)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간 연합기구로서 2005년 10월 30일 설립되었습니다.
건작연은 설립 이후 회원교회 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을 전개하고, 교회개혁 시민단체를 지원 협력하며,
건강한 작은 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이하 '이교다 세미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또는 '익명화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초대해 한국교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모색하고 공론하는 장이다. 이교다 세미나는 한국교회 내의 문제들로 제도적 교회를 떠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 문제들은 '교회의 교권사제주의', '목회세습', '물질지향의 기복신앙', '소통부재', '불투명한 재정운영', '무리한 건축', '사회참여 외면' 등이 있다. 이교다 세미나의 목적은 위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익명의 그리스도의 회복을 돕도록 관계 기관 및 건강한 교회를 연결시켜주는데 있다.

(자세한 내용은 p.56 참조)

제1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자료집

2018.4.29.(주) 오전10:00-오후4:00 | 복사골문화센터

"민 | 주 | 적 | 인 | 교 | 회 | 벽 | 앞 | 에 | 서 | 다"

예인교회

[자료집 목차]

자료 순서

01 첫 번째

연합 주일예배ㅣ오전 10:00-12:00ㅣ2층 아트홀 p.5

_찬양/악보 '교회여 일어나라' 외 3곡ㅣ찬양팀[예인] p.6

_대표기도 최우돈[더작은]

_특송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ㅣ성가대[예인]

_인터뷰설교 '성도가 꿈꾸는 교회'ㅣ이헌주 신용은 황영익 p.9

_광고 오후 일정안내ㅣ정재준[예인] p.12

_연합기도 김애희[더함공동체] p.13

※소년부 활동 "환경문화 NGO '온삶'과 함께"ㅣ513호 p.15

※청소년부 활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위한 원데이 영화 클럽"ㅣ514호 p.16

02 두 번째

점심 및 휴식ㅣ오후 12:00-13:30ㅣ4층 식당, 5층 로비

_점심 각 교회별 식권으로 4층 식당에서 진행

_휴식 식사 후, 5층 로비에서 커피와 차

03 세 번째

주제별 세미나ㅣ오후 2:00-4:00ㅣ3층, 4층, 5층 세미나실

_소그룹① 민주적 운영의 허와 실
방인성 목사ㅣ4층 작은 식당/더작은 p.17

_소그룹② 민주적인 다음세대 세우기
전웅제 목사ㅣ512호/너머서 p.21

_소그룹③ 민주적인 역량의 개인적 한계
황병구 본부장ㅣ517호/언덕 p.24

_소그룹④ 민주적인 교회에서의 목양적 돌봄이란
김정태 목사ㅣ514호/새맘 p.27

_소그룹⑤ 민주적인 교회에 대한 다른 이의 시선
황영익 목사ㅣ3층 아트홀 좌측로비/더함공동체 p.35

_소그룹⑥ 변화된 세상, 우리가 찾는 교회는?
김성한 간사ㅣ나들목/예인 p.43

_소년부 "환경문화 NGO '온삶'과 함께"ㅣ513호 p.15

_중고등부 "청소년과 함께하는 위한 원데이 영화 클럽"ㅣ601호 p.16

기타

건작연 자료

_건작연 소개 '건강한작은교회연합'을 소개합니다. p.49

_단체 소개 한국교회 회복을 소망하는 '교회개혁실천연대' p.52

_세미나 소개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p.56

[연합 주일예배]

‘민주적인 교회, 벽 앞에 서다’

찬양 **(자료집 pp.7-10참조)** 찬양팀[예인]

‘교회여 일어나라’, ‘나는 오늘도 가네’, ‘성령이 오셨네’, ‘주는 평화’

더불어 함께 드리는 기도 다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을 통해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안착되게 하시고, 5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가 더욱 견고하게 하소서.
- **정치사회경제문화**에 적재된 패악들이 잘 청산되게 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게 하소서.
- **한국교회가 이념과 권력**에 편승하지 않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기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건작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아픔**을 감싸 안는 넓은 아량과 한계라는 벽을 넘어서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소서.
- **대안공동체**로서 더욱 내실을 기하며, 공동체성을 강화하게 하소서.
- **각 교회와 기관의 운영위와 사무국, 사역자와 교역자**를 위로하시고, 더욱 결속하는 건작연 되게 하소서.

[설교자와 세미나를 위하여]

- **설교자와 사회자, 오후 주제별 세미나와 강사 및 진행자**들과 함께 하소서.
- **익명화 중이거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안을 모색하며,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위한 노력들로 결실되게 하소서.

영상 다함께

“익명의 그리스도인”

기도 최우돈[너머서]

특송 성가대[예인]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인터뷰 설교 이헌주[너머서]

“민주적인 교회, 벽 앞에서 서다”
신용은 집사[너머서] 황영익 목사[푸른나무]

광고 정재준[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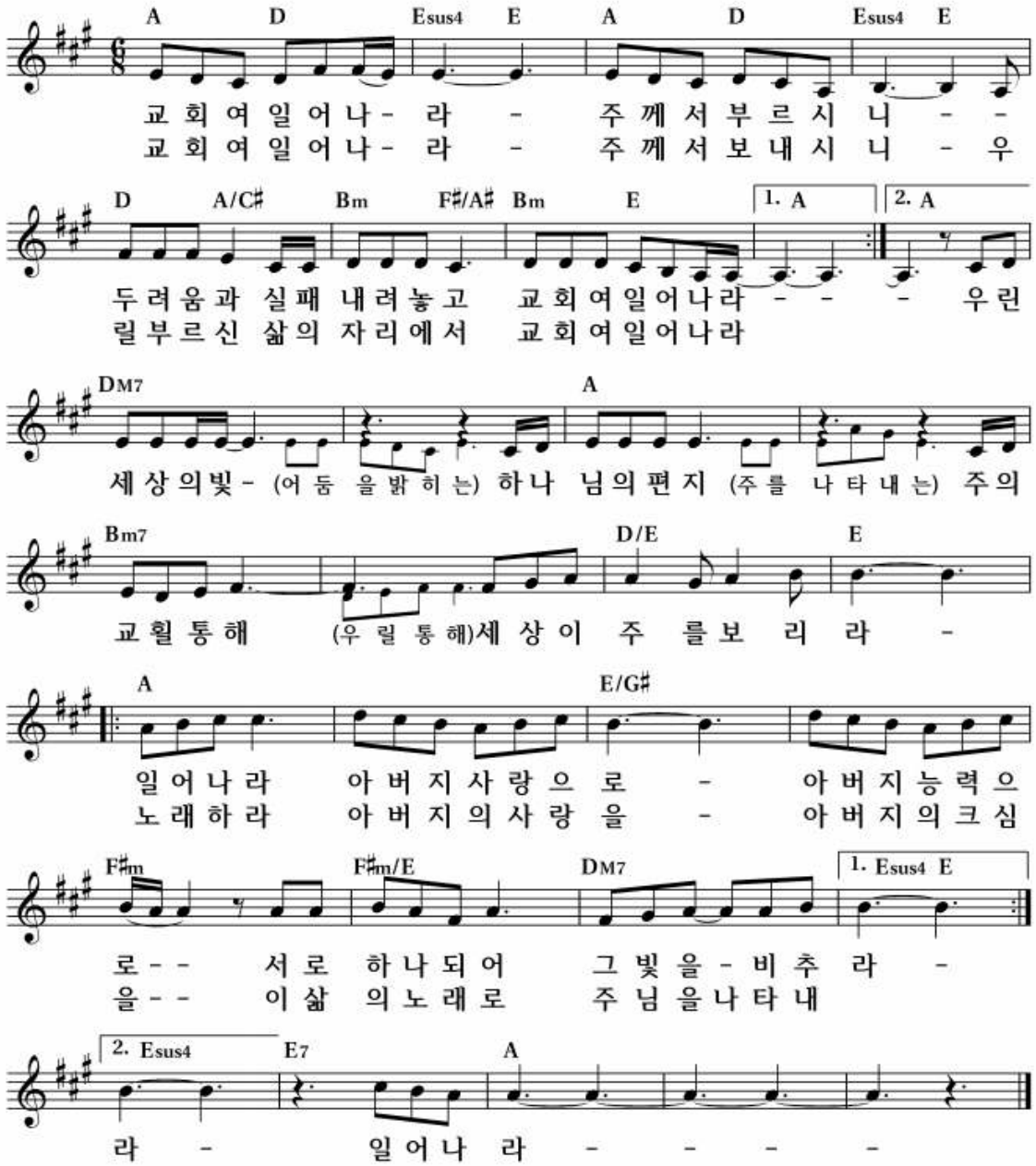
기도 김애희[더함공동체]

공동축도 다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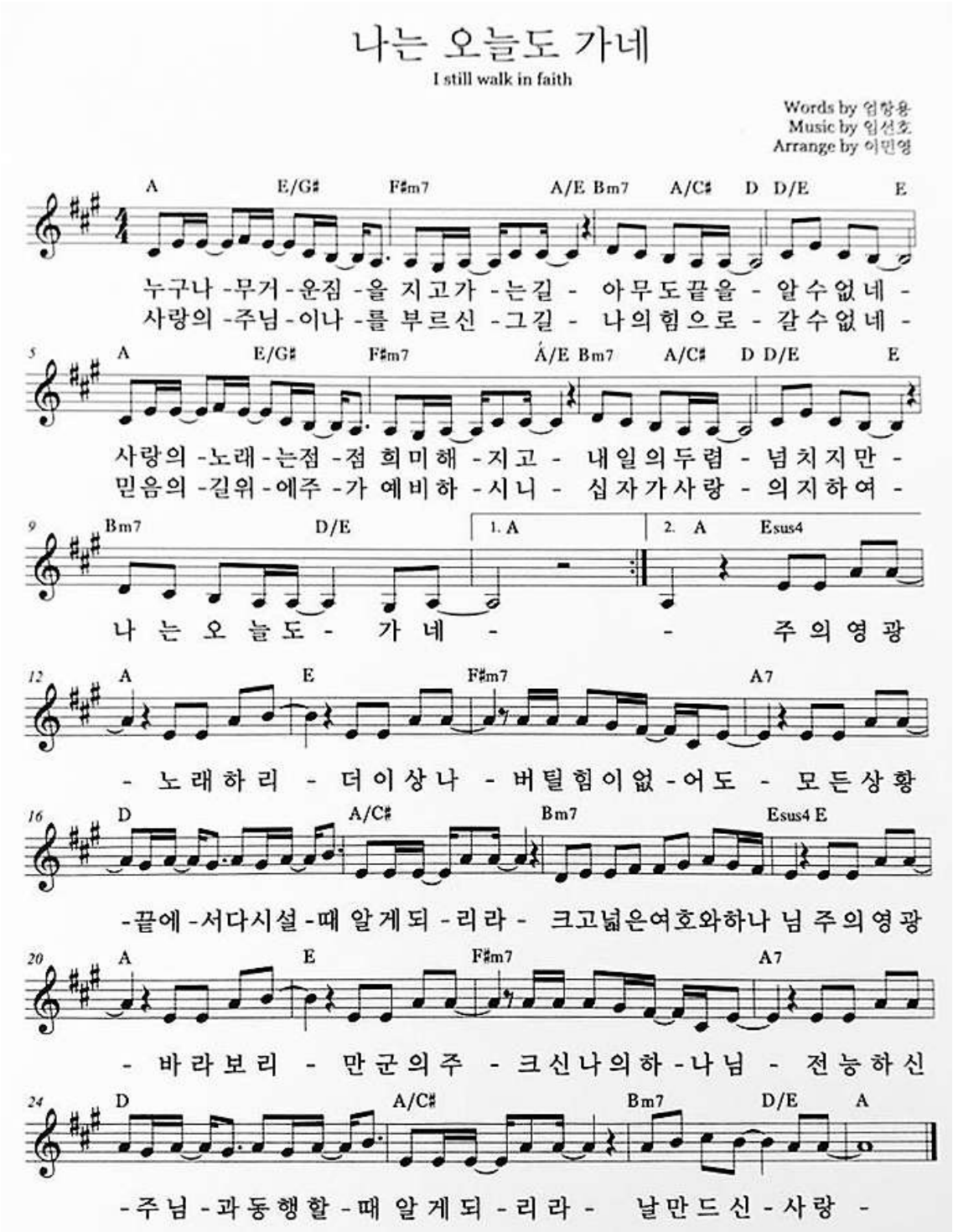
[찬양_#1]

교회여 일어나라

전은주



[찬양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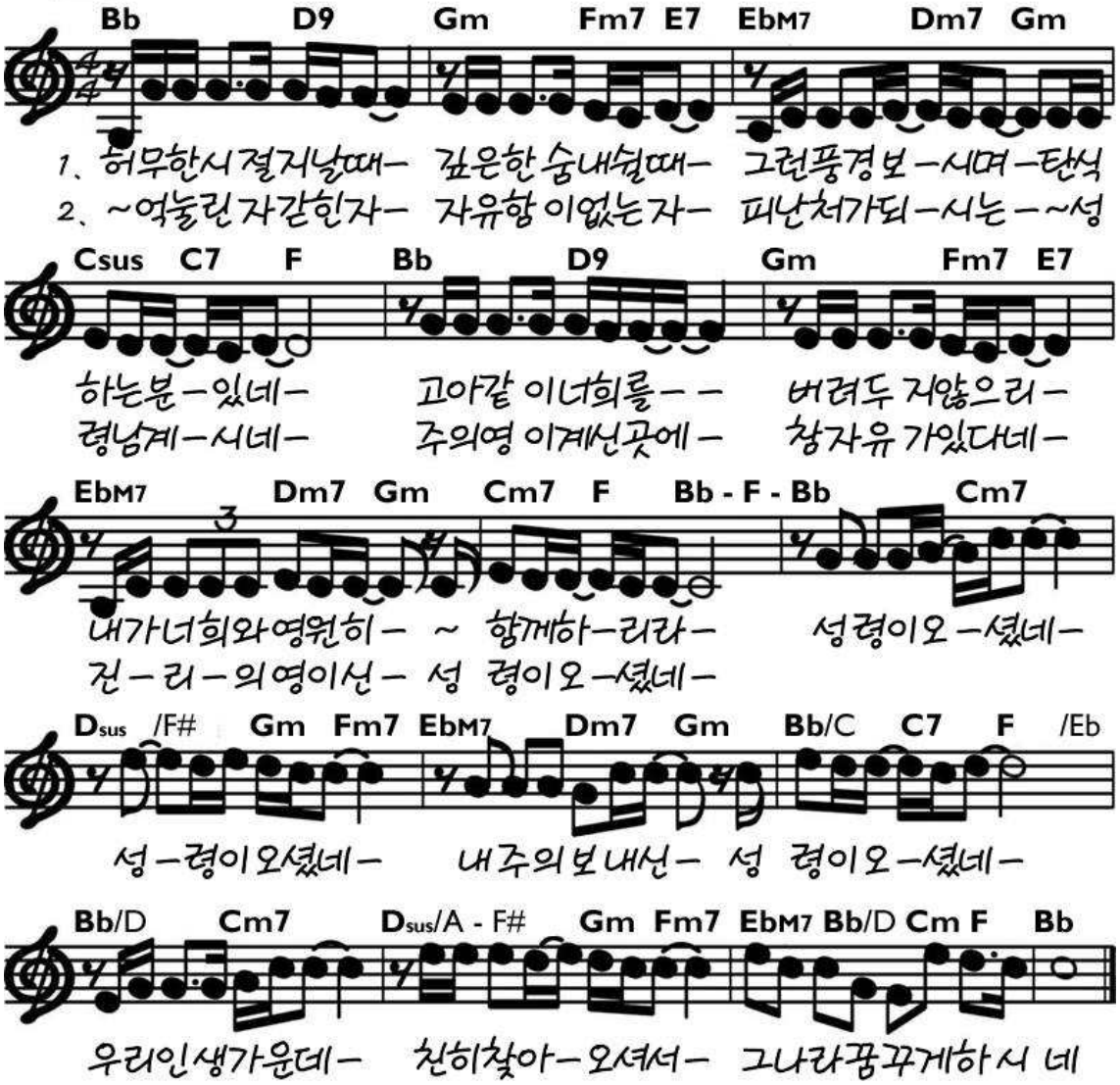

나는 오늘도 가네
I still walk in faith
Words by 임항용
Music by 임선호
Arrange by 이민영
누구나 -무거 -운짐 -을 지고가 -는길 - 아무도끝을 - 알수없네 -
사랑의 -주님 -이나 -를 부르신 -그길 - 나의힘으로 - 갈수없네 -
사랑의 -노래 -는점 -점 희미해 -지고 - 내일의두렴 - 넘치지만 -
믿음의 -길위 -에주 -가 예비하 -시니 - 십자가사랑 - 의지하여 -
나 는 오 늘 도 - 가 네 - - 주 의 영 광
- 노 래 하 리 - 더 이 상 나 - 버 틸 힘 이 없 -어 도 - 모 든 상 황
-끝에 -서다시설 -때 알게되 -리라 - 크고넓은여호와하나 님 주의영광
- 바 라 보 리 - 만 군 의 주 - 크 신 나 의 하 -나 님 - 전 능 하 신
-주님 -과동행할 -때 알게되 -리라 - 날만드신 -사랑 -

[찬양_#3]

허무한 시절

(원제:성령이 오셨네)

김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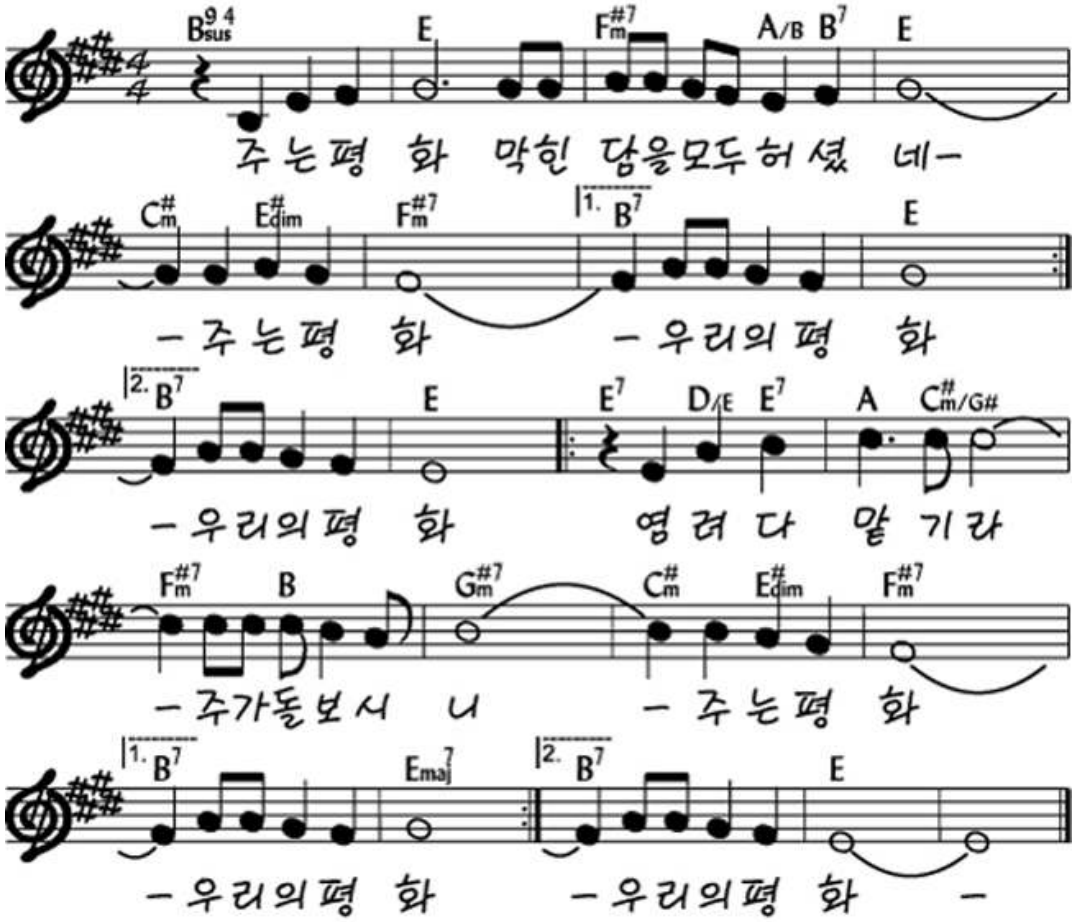


[찬양_#4]

주는 평화

Kendela Groves

다드림선교단 역



[인터뷰 설교]

‘민주적인 교회, 벽 앞에 서다’

[진행] 이헌주 목사, [강사] 신용은 집사[너머서], 황영익 목사[푸른나무]

[질문사항 문자접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질문이나 생각을 문자로 접수받습니다. 취합된 내용 중, 가장 많은 질문 2-3가지를 강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수신처: 010-7112-2461).

[광고]

알립니다

정재준 권사ㅣ예인교회 대외협력사역

1 환영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 식사 안내/

◇점심은 연합 주일예배를 마친 후, 4층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식권을 교회별로 받으신 후, 가능한 계단을 통해 이동해 주십시오.

◇예인교회는 오후12:40부터 식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소년부(초등부) 식사는 행사장인 513호에서 도시락과 다과로 진행됩니다.

3 오후 '주제별 세미나' 진행 안내/

① 민주적 운영의 허와 실(강사: 방인성/담당교회: 더작은)/4층 작은 식당

② 민주적인 역량의 개인적 한계(황병구/언덕)/517호

③ 민주적인 교회에서의 목양적 돌봄이란(김정태/새맘)/514호

④ 민주적인 교회에서의 다른 이의 시선(황영익/더함공동체)/3층 아트홀 로비

⑤ 민주적인 다음세대 세우기(전웅제/너머서)/512호

⑥ 변화된 세상, 우리가 찾는 교회는?(김성한/예인)/예인 나들목/※청년들은 점심 후, 오후1:20에 1층 주차장 입구(본관 뒤쪽)에서 승합차로 '예인 나들목'으로 이동 예정(5분 거리).

4 진행본부

◇진행본부는 5층 로비에 있습니다.

◇간단한 의약품과 각 세미나실의 음료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5 소년부(초등부), 청소년부(중고등부) 행사 안내

◇소년부(8세-13세)는 513호에서 오전10시-오후4시 자체 행사를 진행합니다(식사 별도진행). 환경운동 NGO단체인 '온삶'의 스텝들과 함께 합니다.

◇청소년부(14세-19세)는 오전시간에는 514호에서 진행하며, 오후2시부터는 601호에서 '영상문화연구소 필름포스'와 함께 별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기도]

공동기도

김애희 집사ㅣ더함공동체교회

인도자 지배하고 지배 받는 존재로서가 아닌, 연합의 존재로 교회를 부르신 주님.

회중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자: 주님,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으로 연합된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기력하며,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과 정의를 잃고 썩어져 가는, 하 수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중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자 목양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되고, 나그네와 고아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도록 명령받은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선호하고 위정자들에게 아첨하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시급합니다.

회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자 작금의 교회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선포하기보다, 세상과 단절하여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이분화 된 성도들을 양산하고, 심지어 교회의 사랑과 정의가 세상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회중 교회 안에 사랑과 정의가 넘쳐흘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자 만민이 제사장이 되도록 선언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회중이 총회로 나와, 의논하여 주님의 뜻을 함께 묻는 민주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회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인도자 그러나, 모든 회중이 총회로 나와 의논하여 주님의 뜻을 묻는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 저마다의 독선과 아집에 민원주의로 전철되는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회중 주님! 우리는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인도자 상담자이며 지혜의 왕이신 주님! 우리들의 건강한 의논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로 섰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중 보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함께 서로 의논하는 건강한 교회들을 더욱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축도

김애희 집사 | 더함공동체교회

인도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회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함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육부서 활동①]

소년부 활동프로그램

"환경문화 NGO '온삶'과 함께"

513호

1. 프로그램 시간계획

■ 1부

1) 10:00-10:20: 인사(맞이하기)와 포스터 관람

2) 10:20-12:00: '벌새 이야기' 영상

_지구 온난화란?

_사막화 진행상황-몽골, 물에 잠기는 섬 등

_생태계의 변화 (영상)

_숲의 중요성

_공정무역이야기

■ 2부

_생산지 마을 이야기

_남반구와 북반구의 경제적 불평등(영상)

_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_모두 함께 행복해 지기 위한 '나'의 결단-> 메모지에 작성 -> 전시

2. 강사(이영애) 소개

*문학을 좋아하고, 성공회 대학교 NGO대학원에서 비정부기구학을 전공.

*결혼 후 일본에서 11년간 거주, 2000년 귀국.

*일본어강사, 번역회사운영을 거쳐,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환경단체 모임구성(-1회용 및 플라스틱용품 사용STOP! 텀블러, 손수건 휴대하기 운동, 소비와 행복에 대한 강연 및 공부 모임 개최)

*유기농가와 김장재료 계약재배-가족이 함께 김장하기 개최.(-후손에게 건강한 땅과, 김장문화를 계승)

*숲(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에콰도르에서 공정무역 삼림재배 자연농법으로 커피생산을 하도록 기술교육을 하고, 전량을 수입.

*생산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장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마을이 되도록 플랜을 만들어 가고 있음.

[교육부서 활동②]

청소년부 활동프로그램

"청소년과 함께하는 위한 원데이 영화 클럽"

514호

1. 프로그램 시간계획

1) 10:00-10:20(20분): 아이스브레이킹
2) 10:20-12:30(130분): 선택 강좌
   ① 류현 - 콘티로 완성해보는 나만의 스토리텔링
   ② 장다나 - 나의 판타스틱 사진영상 만들기
   ③ 유지은 - 사진으로 알아보는 나의 심리는?
3) 12:30-13:30(60분): 점심식사
4) 13:30-15:00(90분): 영화 '와즈다' 관람
4) 15:00-16:00(60분): 영화에 대한 소감 나누기

Wadjda|2012|사우디아라비아, 독일|
감독 하이파 알-만수르|주연 와드
무함마드, 림 압둘라, 압둘라만 알고하니

2. 강사 소개

1) 류현 감독님
   ① 사회학과 졸업 후, 애니메이터로 활동하다가 콘티작가로 전업해 영화 <과속스캔들>, <인간중독>, <국가대표 2> 등 20여 편의 영화에 참여.
   ② 다수의 단편영화 연출.

2) 장다나 선생님
   ① 다큐멘터리 실험영화연구로 석사(연세대)를 마치고 현재 영화이론 전공 박사수료(중앙대).
   ② CGV아트하우스 큐레이터 및 99.9mhz 경기방송 <바운스바운스>에서 영화칼럼니스트활동, 현재는 지인들과 도심형 공동주택을 짓고 살며 공동체적 삶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 <코하우스 이야기>를 집필 중

3) 유지은 선생님
   ① 학부는 물리학, 특기는 피아노, 공중파와 종편 방송 교양프로그램을 다수 연출
   ② 작사 작곡한 노래가 더 유명한, 독립저널 영상이몽 발행인이자 영화제작 강사,
   ③ 영화치료 사진치료 미술치료로 나와 타인의 진정한 소통을 꿈꾸는 르네상스형 인간

[주제별 대화]

소그룹_01

"민주적 운영의 허와 실"

4층 작은 식당/더작은교회

방인성 목사ㅣ함께여는교회

건강한교회를 지향하는 공동체의 '민주적운영'이라는 명제가 때로는 성서의 권위만큼 높아져있다. 교회공동체의 유기적 생명체에 대한 이해 없는 '민주적운영'은 자칫 교회의 본질과 선교사명을 훼손할 수 있다. 건강한작은교회를 이루려는 우리들의 민주적 운영을 정직하게 드려다 보아야 할 때이다. 오늘 우리의 고민을 나눔으로 진정한 민주적 교회운영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1. 왜? 민주적 교회운영 인가?

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엡1:23)

유기적 생명공동체 (성도는 그의 몸의 지체(롬12:3-5))

- **경직된 조직체가 아니라 성숙하는 유기적 공동체이다.**

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엡1:22)

교회공동체의 주인은 예수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이다.

- **어떤 직분자도 성도도 왕 노릇(교회의 머리) 할 수 없다.**

ㄷ. 교회는 성령이 교통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행2:41-47;고후13:13))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의 표징으로 교회공동체가 탄생하였다. - **불통이 아닌 교통이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 **서로의 은사를 무시가 아닌 존중이다.**

교회는 말씀(성서)으로 교제(사랑의 친교)와 나눔(이웃 섬김)의 공동체이다. - **성서의 기초를 위한 목회자와 직분 자들의 협력이다.**

ㄹ.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아고라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 그것이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된 공화정치이고, 최고의 의결기관이 에클레시아이다. 이것을 민회 또는 공의회라고 불렀다. 에크(ek)는 '밖에',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klesia)는 "부른다", "모으다"는 뜻이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당시 로마가 최고의 자랑으로 삼는 민주정치의 허상(다른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거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동체를 희망했다. 유대교의 모이는 곳 사제중심의 수직적인 '시나고그'를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사도 신경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신앙고백 공동체이다. - **세속의 민주주의 보다 더 성숙한 민주적 운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2. 민주적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가?

ㄱ. 민주적운영의 교회의 조직 살펴보기(운영위원회/ 장로회/ 교역자회/각소그룹)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조직 이기주의는?

ㄴ. 다수결 원리는 이견(異見)이 존재하는 교회공동체에 중요한 원리이다.

결의에 순종하고 협력하는가? / '나는 내 길을 간다.'며 당을 짓지는 않는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의 후 실행과정에 반영하는가? 무시하는가?

ㄷ. 교우 모두가 자발적 참여와 헌신은 민주적 교회운영의 필수이다.

독재는 구성원들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만 민주운영은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높인다.

참여와 헌신 없이 논쟁과 비판만 무성한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개발하는가?

자발성과 역동성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가?

3. 민주적 운영과 선교사명

교회공동체는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즉 교회의 민주적 운영은 하나님나라를 위한 선교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함이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민주적 운영은 자칫 교회이기주의 또는 교회의 자기의(교만)에 빠질 수 있다.

ㄱ. 우리교회 민주적 운영은 하나님나라를 드러내고 섬기는데 얼마나 열정적인가?

ㄴ. 우리교회 민주적 운영은 하나님 뜻에 즉각적이며 전적인 순종이 있는가?

ㄷ. 우리교회 민주적 운영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가?

나가는 말

교회공동체에 성숙한 민주적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즉 성숙한 민주적 소양을 위해 교회 구성원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적운영의 정관을 갖는 것과 실제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는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가 높아지고 군림하려는 것(권위주의), 효율에만 관심을 두는 성장과 부흥(상업주의), 자기만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독선(이기주의) 등, 자기중심적 죄 성이 숨겨져 있다. 민주적운영이라는 명제 속에 숨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자신과 그 교회를 절대화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교만 또는 독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적 교회공동체는 잘못된 힘에 저항하여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감당하는 능력 키우기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의견으로 소통하는 능력과 담대함 키우기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

적 교회운영이 성장과 부흥을 당연히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보다는 하나님 뜻에 순종(십자가) 하겠다는 순전함으로 실천해야 하겠다. 더 성숙한 민주적 교회운영을 통해 하나님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작은교회운동'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소그룹_02

"민주적인 다음세대 세우기"

512호/너머서교회

전웅제 목사ㅣ하늘샘교회

[part 1. 접촉점을 찾아라]

1) 두 여고생의 대화입니다. 해석해보세요^-^

A: 야 나 ① 뻐정에서 기다리다 ② 영정각 될 뻔. 너 오늘 왜케 늦음?

B: ㅈㅅ 오늘 우리 ③ 마녀한테 돈 받아서 ④ 뻐까충하느라고 느즘. 올- 너 오늘 ⑤ 아라 완전 ⑥ 레알 ⑦ 돋는데? 셀카 ⑧ 프사각?

A: 그치? 완죤 ⑨ 오지고 지리는 부분 ㅇㅈ? 내가 진짜 어제 지영이한테 완전 갈굼 ⑩ 크리떠서 완전 빡쳤잖아. 걔 때문에 완전 애들 ⑪ 갑분싸- 이거 ⑫ 실화임? 지는 맨날 ⑬ 화떡하면서. 그래서 겁나 열심히 그렸음.

B: 야 넌 무슨 ⑭ 유리멘탈 이냐? ⑮ 솔까, 그 기지배가 열라 ⑯ 짜세만 잡어. 완전 ⑰ 듣보인게. 내가 걔 흑역사 페북이랑 인스타에 털면 바로 ⑱ 아싸되는 거임 ㅋㅋㅋ

A: 에이 그건 좀 ⑲ 에바쎄바 참치임. 근데 오늘 영시 보는데 공부 좀 했냐?

B: 아니? 그걸 왜 함 ㅋㅋ어차피 다 찍고 자도 ⑳ 평타취는 나오니까 갠찬. 끝나고 ㉑ 코노콜?

A: 코노 받고 피방가서 ㉒ 옵치 한판 고고?

B: 누가 요새 옵치함? ㉓ 배그 기기?

A: 나 배그는 렉이 심한데 갠찬?

B: 이거 완전 ㉔ 문짠이네- 내가 ㉕ 장인이니 나만 믿음. 오늘 ㉖ 치킨 먹게 해줄게! 레츠기릿-

2) 청소년들이 피씨방에서 가장 즐겨하는 게임 3가지를 써보세요.

3)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이그룹, 걸그룹과 대표곡들을 각각 3개 써보세요.

[part 2. 문제점을 찾아라]

1) 청소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2) 청소년들에게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part 3. 천천히, 한걸음씩]

■ 주제 말씀: 열왕기하 4:31-37

31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
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32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33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
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
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36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37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1) 아이들 이해하기

① 자기 입을, 그의 입에 – [ ]를 맞추고

② 자기 눈을, 그의 눈에 – [ ]를 맞추고

③ 자기 손을, 그의 손에 – [ ]을 함께 보내고

④ 그의 몸에 엎드리니 – [ ]을 나누고

⑤ 복음 보다 관계가 [ ] 이다. [ ] 가 되어주어야 한다.

2) 인내하기.

① "차차" 따뜻해 지더라

② 집 안에서 한 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다

③ 일곱 번 재채기 하다

[part 4. 오버처치]

1) 예배의 다양함을 경험케 하라

2) 세상 속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라

3) 세상과 하나가 되게 하라

소그룹_03

"민주적인 역량의 개인적 한계"

517호/언덕교회

황병구 본부장 | 한빛누리재단

1. 민주주의의 꽃

1) 민주주의의 반대말

2) 다수결에 대한 오해

3) 민주적 입법부와 사법부의 우선 가치

4) 대의 민주제에서 선거의 기능

2. 민주, 자유, 공화의 역학

1) 자유가 민주를 누를 때

2) 민주가 자유를 누를 때

3) 공화의 성취는 주권의 작동으로

3) 과거: 정통 왕권으로

4) 근대: 민주 헌법으로

3. 교회가 민주적이라는 의미

1) 주권재민사상의 성경적 적용

2) **공리주의의 배격**: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아닌 소수자의 편에 서기

3) 서로 다름의 인정과 갈등 존재의 정상성

4. 성도 개인들이 길러야할 민주적 핵심 역량

1) 대화와 소통의 기술

2) 협의와 타협의 기술

3) 다수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절차 학습

4) 합리적 기록과 그 보존 및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서 작성

5) 평가와 보상에 대한 열린 태도

[사례] 나들목교회의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다섯 가지 원리'

1) 말씀의 최종적인 권위

2) 협의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

3) 지도자 공동체의 영적 분별

4) 섬김의 원리

5) 자발적 헌신

소그룹_04

"민주적 교회의 목양, 어떻게 할 것인가?"

514호/새맘교회

김정태 목사ㅣ사랑누리교회

1. 한국교회들의 일반적 현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들려온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징후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과 밖에서 큰 사고를 쳐 말썽이 되는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말썽의 핵심에 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각종 성적 범죄부터 시작해서 독재로 인한 내부 구조의 파괴, 재정문제와 세습강행 등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힘든 일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잘 섬기라고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니 교회 전반의 영적 건강이 위협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회자에게만 모든 탓을 돌리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의 영향력이 매우 적은 곳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부임하기 이전 굳어져 버린 관행들이 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세속 사회에서 습득한 이런 저런 나쁜 관행들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자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교인들은 비목회자 교인들 탓을 하고, 비목회자 교인들은 목회자 교인들 탓을 합니다. 결국 교회는 모든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주주총회나 동창회 같은 모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겪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꿈을 꾸는 교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목회자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고민입니다. 요즘 시대에 목회자의 존재는 마치 '계륵'(닭갈비) 같습니다. 그대로 두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없애자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답도 각기 다르고요. 그렇지만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고민하면 각 교회에 맞는 근사치의 답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의 지난 교회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 저는 이런 교회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교회 경험들 때문입니다.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에 입학해 목사가 되는 길을 밟았습니다. 1995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목사 노릇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쳐 온 교회들을 하나씩 돌아보며 생각해보면 다양한 교파 다양한 영적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장로교 고신 측 교단의 한 시골 교회에서 엄격한 말씀훈련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거기는 담당 목회자의 권위가 매우 강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도시에 있는 대형교회에 계시는 분이라 일 년에 한두 번만 와서 세례를 집례하고 가셨습니다. 대신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참 행복하고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특이한 분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이 교인들 몰래 불법으로 건축헌금을 사례로 가져가신 겁니다. 그 일로 온 교회가 갈라지고 다투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문제제기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발람이니 이세벨이니 하는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목회자에 대한 시선이 새로워졌습니다. 일반 성도가 목회자보다 더 정의롭고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목사는 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삶이 이상하게 꼬이더니 지금은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아픈 기억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하나님의 좋은 밑거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때는 서울 친척 집에 머물면서 장로교 통합측 교회에서 청년생활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장로교 정치체제를 가진 곳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매우 훌륭하셨습니다. 매우 인격적이고 민주적 소양을 가지신 어진 목사님 덕분에 장로님들 사이에도 파벌이 없이 아주 좋았습니다. 청년들이 담임목사님을 찾아가 이런 저런 건의를 해도 축출당하지 않고 잘 수용되었습니다. 비판의식이 강하던 신학생이던 제가 보기에도 그런 교회라면 장로교 정치 체제도 큰 문제가 없다 여겨졌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까지 사랑으로 보듬고 말을 놓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을 통해 좋은 목회자는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어릴 적 받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은 여전히 제 마음 속 영원한 담임목사님이십니다.

신학교 졸업 후에는 지방에 있는 소속 교단이 아닌 작은 교단의 전임전도사로 일했습니다. 이 교회는 오순절 교단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큰데 신학교도 제대로 없고 지역도 지방이라 늘 목회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곳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담임목사님과 저만 있었기에 대부분의 사역은 일반 성도들이 맡아 섬기셨습니다. 교회학교 부장님이 설교도 하시고, 교구 구역 맡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심방부터 장례식까지 섬기곤 하셨습니다. 소위 평신도 사역이 가장 활발할 수밖에 없던 곳입니다. 평신도들의 활동이 많은 것은 좋았는데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역의 전문성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특히 교회학교나 청년부 설교의 경우 모든 교인들이 알만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시켜도 기본적인 신학을 이수하지 않는 한 개선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 신학을 배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목회자 없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장기적으로 가능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교단으로 돌아와 서울 근교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려고 애쓰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 자체가 워낙 카리스마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정은 혼자서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목사님께 잘 보이려는 분들이 많아서 보충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낼 분들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으며 제도권 밖에서 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민주적이고 인격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교회 경험을 통해 저는 결국 민주적 교회란 현실에 맞는 제도를 잘 갖추고, 그에 걸맞도록 사람이 변화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는 제도란 너무 이상적인 꿈을 꾸다가 사람의 현실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너무 현실만 고려하다가 이상을 놓치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장에는 일반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아울러 목회자의 영적 성장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한 목회자 때문에 비목회자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반대의 경우 목회자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현실 교회를 경험하면서 저는 성경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양은 무엇이고, 그런 목양을 이루기 위해 성경은 어떤 제도를 갖추라고 할까요?

3. 성경에 있는 목양의 원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목양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양이란 말 자체가 내포하듯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래 양과 목자의

비유는 고대세계에서 왕과 백성을 일컫는 정치적 비유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하나님이 목자란 말은 하나님이 왕이란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 혼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폭군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나타난 세속 왕들 때문에 생긴 이미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은 목자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여 양을 돌보는 자기희생적인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왕입니다. 한 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필요를 보살피고 배려하는 지극히 인격적이고 자애로운 목자로서의 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 끝까지 기다리고 설득하는 민주적인 왕입니다. 그렇기에 성경 속 목자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백성들이 선출한 지도자와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좋아하는 이들의 지지와 사랑에 힘입어 왕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하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양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성경은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성경 속 제도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사사, 레위 같은 다양한 직책들이 생겨났고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로 건너오면 영민주주의가 출현합니다. 구약의 영웅 몇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오순절 이후 교회는 영민주주의가 가능케 되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주인도 종도 모두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기본 정신에 따라 성령 받은 모든 성도는 사도 장로 감독 집사 전도사 교사 등이 모두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평등하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는 전임사역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다들 교회를 섬기는 것만을 전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었던 셈입니다. 이 차이가 차별로 발전한 것이 교회역사의 비극입니다.

4. 교회사에서 목양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지나 고대교회 중세교회가 되면서 교회 내 직분은 점차 차별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영민주주의가 퇴색하고 인간이 인간 위에 지배하는 악한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중세가 그 타락의 끝을 잘 보여 줍니다. 중세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사제들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중세를 허무셨습니다.

첫째는 흑사병이 창궐입니다. 환자를 돌보던 사제들이 죽으면서 사제에 대한 신도들의 신비주의

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 후 가톨릭교회는 부족한 사제의 수를 메꾸려고 무자격 사제들을 양산했습니다. 라틴어도 모르고 교회 역사와 신학도 모르는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하며 교인을 속였습니다. 우습게도 당시에는 인문주의의 물결과 함께 라틴어와 성서원어를 읽는 평신도들이 급격히 늘어난 시대였습니다. 우매한 사제들의 신비적 권위가 계속 지속될 리 만무했습니다.

둘째, 종교개혁이 일어나 중세를 허물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계급화된 중세 기독교의 직책을 다시 영민주주의로 되돌리려 놓았습니다. 모든 신자의 일터가 사제의 교회섬김과 같이 거룩하다고 하였고, 교황이 독점하던 공의회 소집권과 성서해석권을 교회와 일반신도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차이는 있으나 차별이 없는 구조를 불완전하나마 다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신교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초창기 개신교 목사들의 수준은 가톨릭 사제보다 더 나빴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잘못 이해해 도덕적 타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영적 상향평준화를 위해 도입된 만인사제직은 교리가 도리어 영적 하향평준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독일사회는 무자격 목사들을 걸러내기 위해 시찰단을 만들었습니다. 루터가 1524-28년에 집중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여 본 결과 상황은 중세 가톨릭보다 더 심각한 부패와 무지와 종교경제 유착이 만연했습니다. 시찰을 마친 루터는 부랴부랴 목사 목회 지침서를 새로 만들고 무자격 목사들의 교구 영지를 몰수하고 내쫓는 또 다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이후 교회의 역사도 진자의 주기처럼 계속 이리 저리 돌면서 그 시대에 적합한 해법을 찾으며 지속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목양의 원리를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구현하려고 애쓴 교회역사의 결과가 지금 존재하는 다양한 교단과 교파들입니다. 현대야 말로 교회정치체제의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정교회 성공회 가톨릭 같이 전통적인 질서가 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장로교 같이 대의정치가 강한 곳이 있고, 퀘이커 침례교 등과 같이 회중주의가 강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제 각기 자기 공동체의 현실과 꿈에 맞는 체제를 선택하여 창조적으로 적용할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창조적 적용의 작은 예로 제가 섬기는 사랑누리교회의 목양 구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서로 지지하고 기도해주셨으면 합니다.

5. 민주적 목양의 작은 예(사랑누리교회를 중심으로)

1) 저희 교회도 나름 민주적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후 뒤늦게 교회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부목사 청빙과 안수, 노회와의 관계, 위임목사가 없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당회를 구성한 뒤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먼저 정관을 정해 당회의 성격을 규정한 뒤 사람을 뽑았습니다.

-늦게 생긴 정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좋은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직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기존 교회의 목회자상을 그대로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타교회에서 경험한 나쁜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목사 장로 재신임(안식년 포함), 당회권한 제한과 같은 규정들입니다.

-정관은 자주 손대지 않을 수 있도록 핵심규정 외에는 최대한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시던 교우께서 헌법은 원래 큰 정신을 담고 법률이나 시행령에 자세한 것을 싣는다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정관이 너무 세세하면 무엇 하나 결정할 때마다 공동의회를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조언에 따라 그 동안 교회가 잘 해오던 관습법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회의기록을 남겨 결정을 기억은 하지만 그것을 강한 규정으로 만들지 말아서 필요에 따라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위원은 20명 내외로 하되, 당회원(장로 목사), 재정부장, 감사, 남녀선교회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는 매년 제직회에서 선발합니다. 당회원은 6년이 지나 안식년이 되면 운영위원이 될 수 없고, 다른 위원은 2번 연임 후 일 년 쉬어야 다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교회 내부의 운영을 협의하고, 당회는 노회 등 외부기관을 향해 교회를 대표하기로 했습니다. 당회원들이 포기한 권한은 제직회와 공동의회가 가집니다.

-거의 개정하지 않고 10여년을 사용하다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초창기 운영위원 선출에는 남녀 나이 모두 골고루 반영되더니 어느 순간 남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나이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관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한 끝에 남자든 여자든 60퍼센트를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관에 삽입했습니다. 나이까지는 정관에 넣지 말고 최대한 선출할 때 잘 고려하도록 광고하는 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 최대한 서로 존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비목회자를 존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비목회자 성도를 통해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겸손히 엎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는 최대한 뒤늦게 발언하고, 논의를 주도하기보다 조율하려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또한 비목회자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피려 합니다. 때로는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보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우리 공동체의 영적 수준과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함부로 밀어붙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나아가며 만드는 영적 신뢰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3)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하여 의견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민주적 정관을 가졌지만 목사를 비롯해 모든 이들이 민주적 소양이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첨예하게 감정적 대립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학교에서부터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함께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운영위원회를 회사의 주주총회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마치 교회라는 회사에 월급 받으며 고용된 목사가 투자자들이나 주주들 앞에서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처럼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작은 안건인데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면서 5시간을 훌쩍 넘기며 격론을 버리고 서로 마음을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서 운영위원회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결국 운영위원들 스스로가 너무 지쳐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목회보고는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제직부서가 맡아 매년 규칙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분기에 한번 이상만 모여서 교회의 큰 변화를 가져올 큰 안건들만 다루고 나머지는 제직부서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후 운영위원회가 훨씬 편안하고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직 갈 길이 태산입니다. 변해가는 세상보다 반걸음 앞서며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가야 하는데 여전히 힘에 부칩니다. 한 주 한 주 넘기는 게 기적입니다.

6. 죄송하지만 사실 저도 민주적 교회의 목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민주적 교회의 목양이 어떤 것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방, 말씀선포 같은 이야기들은 죄다 빼고, 교회 정치 구조만 나열하였습니다. 그게 가장 이야기하기 쉬운 주제인가 봅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가 무엇일까', '목회는 무엇일까?', '난 왜 목사로 일하는가?', '난 언제까지 목사 노릇하며 살게 될까?', '천국 가면 목사란 직책도 없을 텐데, 우리 교회가 빨리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난 성도들과 영적으로 하나도 나은 게 없는데 여전히 속이고 사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불쌍하다' 이런 유의 생각을 계속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서두에 말한 대로 현대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는 닭갈비(계륵) 신세입니다. 버리자니 뼈에 붙은 살이 아깝고, 두자니 아무 쓸모없는 것을 넘어 해악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을까요? 그 답은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창조력과 힘을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그룹_05

"민주적 교회를 보는 다른 이의 시선"

3층 아트홀 좌측 로비/더함공동체교회

황영익 목사|푸른나무교회
미셔널처치 연구가

1. 관점에 대하여

강의의 제목처럼 나는 지금 다른 이가 되어 강의를 하게 되었다. 다른 이는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보게 된다. 시선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특히 시선은 '다름'을 만들어낸다. 내부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과 외부에서 안을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라는 면에서 그리고 교회갱신운동을 동의한다는 면에서는 내부자적이고, 아울러 민주적 교회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목회자라는 면에서 외부성이 있다. 외부자는 내부자가 보지 못하는 풍경을 볼 수 있고, 특이한 발견을 할 수 있는 지점에 있다. 사진을 찍는 작가가 포착해내는 장면은 사진에 담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목회자이자 교회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본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적 교회'의 조망은 그리 아름다운 풍경이나 양상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민주적 교회를 배척하거나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선의 묘미는 공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포착하게 하기도 한다, 시선은 다름을 포착할 뿐 아니라 '새로움'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다른 이의 시선으로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과연 민주적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민주적 교회는 과연 민주적인가? 민주적 교회는 민주적 정관이 꼭 필요한가? 민주적 교회를 건강하게 작동시키는 장치는 무엇인가? 현재 노출된 부작용은 없는가? 왜 목회자들은 민주적 교회를 불편해 하는가? 왜 한국교회에서 이 운동이 대중화되지 못하는가? 민주적 교회운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이다. 내부자의 시선이든 외부자의 시선이든 민주적 교회를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자 노력한 지난한 수고에 찬사를 드린다. 아울러 신학적 성경적 실천적 관점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자성하고 그 빈틈과 어긋난 지점을 메꾸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자 한 바로 그 교회를 꽃피워가야 할 것이다.

2. 민주적 교회, 그 기초는 무엇인가?

사실 '민주적 교회'라는 용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그것이 비성경적이거나 성경적 근거가 없는 교회용어이거나 담론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신교 신학의 정수에 뿌리박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회중이 곧 교회라는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교회와 관련한 교회론적 어긋남은 '민주적'(democratic)이라는 용어에서 파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적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은 그 '민주성'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요 개혁교회의 핵심 운영원리라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필자는 '민주적'이란 말은 개혁교회의 본질도 아니고 교회운영의 근본원리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적 교회 운동이나 '민주적' 운영은 개혁교회의 특이한 역사적 양상이자 한국교회적 돌출현상으로 생각된다.

민주적 교회가 꽃피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적절한 생태환경이 필요하다, 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교회의 DNA이다. 민주적 교회라는 테제 혹은 비전에 태동하게 된 배경이과 이를 주도하여온 사람들의 교회관, 바로 그것이 민주적 교회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민주적 교회'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독특한 운영구조를 지니게 된 것은 전통적 개신교회의 교단운영의 원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시도를 행한 점과 직결되어 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신학적 교회론적 작업이 아니라 교회개혁운동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신학적 교회론적 배경은 대개 한국장로교의 보수적 신학적 토양을 가진 분들이었고, 그 모델은 화란 개혁파 장로교의 운영방식을 도입하거나 혹은 창조적으로 이식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목사와 장로의 종신제에 가까운 한국장로교의 목사직 제도와 장로 직제에서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발생하였다고 파악한 것이다. 즉 한국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근저에 잘못된 제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고 대안적 시도를 한 것이다. 목사의 독재, 목사 장로의 권력화와 그릇된 교회 운영을 방지하고 극복하고자하는 제도로 민주적 교회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이를 전략과 슬로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교회개혁운동의 과정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대안찾기라고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자면 한국교회의 병리적 현상의 토양 위에서 생겨난 실험적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거대한 물줄기로 형성되지 못하고 하나의 샘 혹은 작은 지류로 존재하는 민주적 교회가 큰 강이 되어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메마른 웅덩이로 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민주적 교회운동이 얼마만큼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담아내고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3. 민주적 교회를 실상과 허상

'민주적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사랑, 그 진정성과 헌신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진정성과 열정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 신학적 적합성과 실천의 지혜이다. 민주적 교회이 장점은 곧 단점을 내포하고 있고, 아름다운 실상은 보이지 않는 허상을 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간 '민주적 교회'가 노출한 몇몇 취약한 점을 개략하고자 한다.

1) 민주적 교회에 대한 오해

한국교회에서 민주적 교회는 다름 아닌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고 이해하고, 목사의 독재나 장로의 전횡의 반대말은 평신도의 통치라고 짐짓 단정 짓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민주적 교회는 평신도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종교개혁가의 근본 고백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통치에 대한 반대이자 항거이다.

따라서 민주적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고백한다면, 교회를 자신의 뜻과 욕망과 이익에 따라 운영하고 자의적으로 끌고 가려는 교회 내의 모든 세력, 제도, 목회자, 평신도그룹, 직분, 모임, 특정 연령층, 세대의 권력화와 통치를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즉 '민주적'이라는 용어가 타당성과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 어느 누가 '그리스도'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 입이 아니라 실재로 행동하는 행동스타일과 권위와 권력의 사용방법에 달려있는 것이다.

엄격하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민주'(民主)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말과 모순된다. 그리고 민주적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사실상 교회

의 구성원들은 그 용어를 신학적으로 신앙고백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민주주의'(democracy)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적 한계에 매여 있다, 즉 '민주적'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상, 다수결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만성에 빠질 위험과 대중의 지배로의 치달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즉 대중을 누가 움직이느냐? 바로 여기에 교회의 주권이 달려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됨만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과 직분들간의 유기적 은사적 연합과 하나됨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적 교회가 대척점으로 삼는 대상 혹은 직분자는 사실상 목사권력과 장로권력이다. 목사와 장로를 직분이 아니라 권력으로만 규정하고, 목사 직분과 장로 직분의 은사적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목사직 자체를 거부의 대상으로 사유한다면 이미 신약성경의 직분론에 바탕을 둔 개신교회를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정관 만능주의

민주적 정관 운동은 한국교회에 신선한 방향성을 제시한 운동으로 알고 있다. 아마 민주적 정관이 한국교회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대안이라고 믿고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많다, 특히 목회자의 전횡과 타락을 경험하거나 극단적 교회 갈등과 분열을 경험한 개체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희망의 되기도 했을 것이다. 이 제도의 효용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굳지 말하지 않고자 한다, 다수 불편하지만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단점과 미숙한 도입과 오용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고자 한다.

3) 교회론적 신학적 애매함과 한계

민주적 교회를 제도화하고자 하면 회중 교회의 전통에 귀착하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장로교회에 대다수인 한국교회에서 목사직과 장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장로교적 직제 구조하에서 그 민주성을 구현하는 방법은 결국 교회운영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결의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민주적 교회가 공통분모처럼 갖추고 있는 새로운 제도라고 보여진다.

가톨릭의 교회론적 체제는 사실 전기구적인 제국적 통치구조이다. 이에 비해 감독제인 감리교의 경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감독이라는 중심적 지도자를 허용한다는 면에서 제왕적 통치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장로교는 민주적 대의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귀족주의 정치이다. 회중교회는 개교회가 목사의 인사권과 교회의 의사결정구조 및 제도를 결정한다는 면에서 오늘날 정치학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제도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민주적 교회 운동은 장로교 중심의 한국교회의 배경 위에 모든 교파와 교단에 대해 열려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각각의 교회가 속한 교단의 제도들과 긴장과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즉 민주적 교회는 교회 제도의 항구적 정착과 새로운 교회를 새우기 위한 신학적 작업이라기보다 목회자 권위주의와 타락을 제어하고 징치하고자 하는 실천적 동기가 보다 강한 제도적 실험이었으므로 이는 어쩔 수 없었다. 즉 교회론에 있어서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한 항구적인 대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애매함과 현행 교회제도와의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목사, 장로, 운영위원회는 각각 담론구성체가 된다. 각각 생각하는 입장과 관점에 적당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견해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서로 견제하기도 하여야 한다, 이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동역의 틀이 될 수 있지만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사회의 종교관련 규정과 판례에 의존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최후의 권력을 지니게 되어 있다. 이는 각각의 교회가 속한 교회 헌법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불가피하게 되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적 교회는 개교회의 결정권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회중교회 친화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궁극적인 상위 권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다른 교회들의 의견이 아니라 교회를 단체 혹은 주주총회로 보는 국가권력이다, 즉 민주적 교회는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최고의 주권으로 의존하지 않고는 작동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사실 작은 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아주 작은 교회는 제직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운영위원회 역시 장로교의 당회의 기능을 하게 되고, 운영위원장이 하나의 권력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민주적 교회 제도란 작은 교회를 위한 일시적 제도로 머물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다면 굳이 장로를 세워야 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3장의 직분자의 자질에 대한 기준처럼 웅영위원의 영적 인격적 기능적 자질을 검증하는 영적 분별력과 문화적 성숙함이 없다면 결국은 누구든 대중의 호감과 대중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운영위원으로 세워지게 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교회 민주주의라면 세속적 민주주의에 다름 아니다.

4) 실천의 미숙함과 시행착오

민주적 교회라는 슬로건과 전략은 결국은 '민주'라는 말에 집착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목회자는 상대적으로 교회개혁에 적극적인 목회자들이고, 교인들 역시 의식있는 평신도이거나 기존 교회의 제도의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상처 입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는 20세기 후반의 한국교회의 성장주의와 목회자권위주의의 폐혜와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네거티브 운동에 집중한 면이 많았다.

더욱이 적절한 교회론적 대안이나 모델이 부재하였다. 교단 구조와 교권의 구속력이 강력한 한국교회 상황에서 적절한 이슈제기이자 활로이기도 하였지만 모델이 될만한 교회들의 연합이 아니라 작은 개혁적 교회들의 실험적 연대로 진행되었다. 개현연대라는 전투적 교회개혁단체가 구심적 기능을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 결과 한국교회에서 소수파의 운동, 외곽의 운동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주류 기독교의 흐름과의 대척점을 이루는 개혁성을 지니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하고 열린 대안을 만들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렇다면 민주적 교회들의 각각의 실상은 어떠하였는가? 과연 민주적 교회를 이루었고, 성경적 교회의 이상을 나름대로 구현해내고, 그 향기가 한국교회에 은은하게 번져갔는가? 이에 대해서는 단언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실천의 미숙함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가며 성숙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전환을 초래하는 격변기가 아닌 경우 교회운동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된다. 수십 년이 아니라 몇 세대 몇 세기가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하나의 역사라고 분류할 수 없는 작은 스토리임을 을 인식하고 서서히 그리고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5) 각론의 부재

교회개혁의 당위성이나 민주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원론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천을 위한 각론이 엄밀하고 정교하며 실재적이지 않을 경우 적잖은 부작용을 낳게 되고 결국은 그 주장과 원론의 가치마저 위협을 받게 된다.

그동안 경험한 많은 사례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학적 작업만이 아니라 방법론적 연구가 보다 엄밀하게 전개 되어야 한다. 현재로는 민주적 교회라는 테제가 한국교회에 명료하게 전달되지 않고, 단지 '운영위원회, 모범정관, 목사 임기제와 신임투표 등의 제도를 실시하는 개혁적인 교회들의 흐름'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 교회가 큰 사태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 참가할만한 고리가 연결되지 않고, 소수의 작은 교회들과 칼빈주의적 개혁교회를 철저하게 구현하려는 일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통된 매뉴얼이나 실천을 위한 각론이 부족하다. 민주적 모범정관과 몇몇 제도적 아이디어 이외에는 각자의 교회에서 알아서 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론을 세부할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게 축척될 역사를 지닌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개혁적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경험과 현상들을 종합하여 각론을 정리해나가야 한다. 비록 다양하고 특이한 경험들이지만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각론 작업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경험들은 감사와 공유와 축제적 나눔으로, 부정적인 경험들은 자성과 회개와 예방적 협업으로 종합될 때 보다 성숙하게 될 것이고, 다른 이들 다른 교회들에게 자신 있게 '함께 하자'고 초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권력의 문제

민주적 교회는 권력에 주목한다. 이는 주권의 문제이다. 누가 주권을 행사하는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을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신학적 고백은 철학적으로 보면 모든 권력과 모든 주권에 대한 거부이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과 교회 내 정치역학에서는 누군가가 권력을 행사하고 사실상의 지배자가 된다. 그간의 민주적 교회 운동의 짧은 역사에서 권력을 둘러싼 쟁투와 분열과 상처의 흔적이 있다면 냉정하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누가 권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누가 주인 행세를 했으며, 어떻게 권력이 발생하여 왔으며, 어떻게 권력 갈등이 전개되었는가? 모든 것이 정치이다. 민주적 교회의 정치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회중의 신앙과 뜻에 따라 적합하게 주어진 직분과 권위에 따라 성경적 교회 운영(통치)를 한다는 것이다.

7) 절대화의 위험

민주적 교회라는 이상에는 어떤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을 이념화하고 절대화하는 이데올로기화의 오류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교회'가 슬로건으로 제시되고 교회 개혁의 핵심 사안이자 대안이라고 믿는 이상 다른 교회들은 민주적이지도 개혁적이지도 않은 교회들로 쉬 분류된다. 그리고 민주적 정관을 만들고 '민주적 운영'을 하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라고, 우리들이 시행하는 제도를 실행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그렇게 않은 교회는 수준이 낮고 성경적 교회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자 무지이다. '민주적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훨씬 민주적이고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모범 정관을 만들었는데도 소수의 권력자가 교회를 지배하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교회일 수가 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공동체를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은 가져야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허위의식과 오만은 벗어던져야 할 것이다.

교회의 연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개신교에는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존재하고, 각각의 지역교회들도 자신의 특징과 은사와 고유한 역사들을 지니고 있다. 여하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되어야 한다. 민주성과 개혁성이 연합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형제이자 자매이다. '민주적' 교회가 차별적 의미를 지니느냐, 연합적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좋겠다. 민주적 교회라는 지평이 형제적 연대와 열린 공간이라기 보다 이질성과 판단적 이미지가 적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개혁을 지극히 강조하는 개혁가들의 후예라서 그런 것인가?

4. 맺는 말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개혁교회의 표지들(marks)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 교회가 항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교회의 본질적 사명들이 있다. 개혁의 횃불을 끄지 말고 아울러 교회의 본질적 미션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 '민주적 교회'라는 그림과 전략을 모두 담아내면서도 보다 따스하고 열려있는 성경적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코이노니아, 즉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공동체라는 말 속에 '민주적 교회'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제안해본다.

소그룹_06

"변화된 세상, 우리가 찾는 교회는?"

나들목/예인교회

김성한 간사ㅣIVF 강원지방회 대표

INTRO 지금, 청년들은?

5년 전보다 현재 대학생들은 우울함, 피곤함, 자살 생각 등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 의존도가 점점 강해지고 종교 필요성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7.7 퍼센트의 대학생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15.0퍼센트라는 기독교의 비율은 다른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그러나 캠퍼스와 청년 사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율은 15퍼센트보다 훨씬 낮게 느껴진다. 이유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속도가 5년 전에 비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교를 포기하고 싶은 비율도 기독교가 제일 높았다...더 중요한 것은 기독 진영에서 '우리가 교회를 왜 떠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트렌드리포트 #학원복음화협의회)

1. 달라진 시대, 달라진 질문들 (POSTMODERN)

post-modernism: "후기 현대/탈 근대"등으로 번역 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 시대가 맞이한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해준다. 서구 근대의 형성과 함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왔던 "이성"에 대한 회의, 진보의 믿음과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한 전면적인 의심등을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1. 신앙에 대한 질문이 달라졌다!

(1) 1970년대 구도자들에게 중요한 10가지 질문들

(2) 2000년대 구도자들에게 중요한 10가지 질문들

1-2. 이 질문의 변화는 우리의 상황에도 유효한가?

(사례1) 변증의 차원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은 (많은 청년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지적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제시 되어야 할 새로운 질문과 모색이 격려되어야 한다.

(사례2) 한국의 가나안성도들, 혹은 교회 바깥의 반기독교정서를 갖고있는 이들의 많은 모습을 2000년대의 질문들에서 발견하게 된다. 교회의 온갖 추문, 변칙세습…"너나 잘하세요!" - 신뢰에 대한 질문, 진정성과 인격에 대한 질문, 적합성에 대한 질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질문

(사례3) 여성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혐의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되고 있는가? - 위계와 구조에 대한 질문들, 고통과 고난에 대한 질문, 신뢰에 대한 질문, 진정성과 인격에 대한 질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질문

1-3. 질문까지도 결정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2. 민족, 민족주의 넘어의 기독신앙 (POST COLONIAL)

2-1. 민족과 기독신앙

서구의 신대륙 발견과 제국들의 팽창으로 본격화 된 전세계적인 식민지화는 사실 서구의 근대성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서구의 근대가 직면한 많은 문제와 모순들을 타자화와 침략, 점령 통치라는

식민지화를 통해 해결하려했다. 서구 기독교국가 Christendom에 의해 주도된 식민지화는 정복과 선교를 통한 기독교신앙과의 불행한 조우에 결정적인 영향을 남기게 되었다. 한국의 식민지 경험은 다른나라들의 달리 민족과 기독교의 거부감 없는 결합이 가능한 토대가 되었다.

2-2.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

한국전쟁 직후인 1960년대 중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화운동이 시작되었다. 1965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2,239회의 전도집회가 열렸으며, 2,290,000명이 전도 집회에 참여했고, 40,000명이 회심했다. 1965년에 있었던 전국복음화 운동은 이후 민족복음화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 된 복음화 운동과 대형집회들의 시작을 알렸다. 이런 대형집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복음화 운동은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의 주요한 이유로 여겨진다. 1970년에 200만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면 1975년에는 400만명 이상이 되었고, 1980년이 되었을 때는 700만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2-3. 거룩한 민족, 상상의 공동체 -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어버린 민족복음화

많은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백성으로, 온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 세움 받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민족을 복음화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교회는 민족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국가에 더욱 깊숙히 포섭 되었다는 점이다.

2-4. 왜, 무엇이 문제인가?

•앤드류 월즈 “문화의 죄수이자 해방자인 복음”

젠더, 계급, 세대, 소통, 시민사회와 같은 민족이라는 거대한 ‘집단적 정체성’ (corporate identity)이 덮고 있던 영역들과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그동안 무시되고, 제거되고, 억압당하던 주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들려오는 시대를 맞이했다.

3. 후기 기독교사회 (POST CHRISTENDOM)

post-Christendom: 기독교국가로 번역 될 수 있는 크리스텐덤은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의 개종 이후 4세기에서 부터 20세기 말까지 계속 된 국가와 교회가 결합된 종교적 문화를 일컫는다. 일차적으로 ‘후기 기독교사회’는 이제 사회정치적 실재로서의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서구 기독교국가를 가리킨다.

한국교회와 크리스텐덤 - 한국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국교였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해의 패러다임으로서 혹은 메타내러티브로서 크리스텐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현존하는 신학적, 선교학적, 교회론적 이해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와 그 사명을 '크리스텐덤' 차원에서 생각한다. 이것이 작은교회, 선교적교회 운동이 등장하고 있는 맥락이다.

3-1. Pre-Christendom시기의 선교

3-2. Christendom시기의 선교

3-3. Post Christendom 시기의 선교

3-4. 하나님의 선교의 등장

•서구 크리스텐덤의 붕괴와 선교

•세계화와 선교

"모든 곳으로부터 모든 곳을 향해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루어지는 선교"

4. 변화된 세상, 청년들이 찾는 교회는?

4-1. 청년트렌드 리포트 살펴보기

질문 7. 교회 불출석 (가나안 교인)

(1) 교회 불출석 시기

개신교인이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소위 가나안 교인 (대학생)에 대해 교회를 떠난 시기를 질문한 결과, '대학 입학 이전' 47.5%, '대학 입학 이후' 52.5%로, 절반 이상이 대학 입학 이후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나 대학 시기에 종교적인 혼란을 많이 겪는 것을 알 수 있음. 대학 이전의 경우 중학교 때 이탈률이 25.3%로 각 시기 중 가장 높아 이 시기의 대응전략이 필요함. 대학 입학 이후 교회 이탈자는 남학생 (13.7%)보다는 여학생 (25.0%) 그리고 생활수준이 하층일수록 더 많음.

(2) 교회 불출석 이유

교회 이탈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학업/아르바이트)'가 45.5%로 가장 높고, 그다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 24.2%, '신앙에 대한 회의' 10.1%등의 순으로, 교회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자신의 문제로 인한 이유가 주를 이룸.

(3) 교회 외 다른 신앙 모임 참여 여부

교회 이외 다른 신앙 모임 참여에 대해 '참여' 3.0%. '참여하지 않음' 97%로 대부분의 교회 이탈자들이 교회 밖에서도 신앙 모임을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질문 13. 한국 교회 과제

(1) 한국 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복 응답)

한국 교회의 시급한 해결 과제는 '세속화'가 41.7%로 가장 높고, 그다음 '목회자 자질 부족/사리사욕' 38.6%, '안티 기독교/이단 문제' 27.1%, '교파 많다' 14.9%, '지나친 자기 교회 중심'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일반 성인 개신교인들보다 이단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보는 경향을 보임.

(2) 한국 교회 젊은 층 활성화 방안

한국 교회에서 젊은 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젊은 층에 맞는 문화적 선교 전략 마련'이 26.9%로 가장 높고, 그다음 '젊은 층과의 소통의 장 마련'(21.4%), '권위주의 타파'(21.1%), '젊은 층을 위한 전문 사역자 양성'(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학새들은 자신들에 맞는 목회 전략/선교 전략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OUTRO 결론을 대신하여 남겨진 질문들

헬조선, 노오력, 혼밥 혼술, 각자도생의 담론은 결과 이웃과 친구들을 버리고 타인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통해 각자의 생존을 모색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 오찬호, 엄기호와 같은 사회학자들은 모두 곁, 바깥이 없어진 우리들의 파멸적인 모습을 지적한다.(#우리는차별에찬성합니다 #진격의대학교 #나는세상을리셋하고싶습니다 #단속사회)

교회에서 청년들은 주로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 등으로 불린다. 청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교묘하게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은 아니며, 불안한 교회의 미래를 떠맡아야 할 주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고령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부양 부담의 증가인데 교회 내에서도 청년들은 '귀한 일꾼'으로 청년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미래세대 #사회적부양부담 #교회봉사)

(1) 질문하는 신앙이 가능한 교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2) 2018년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제도와 구조가 아닌 믿음, 예수를 따름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건작연 소개]

'건강한작은교회연합(건작연)'을 소개합니다.

건강한작은교회연합'건작연'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간 연합기구로서 2005년 10월 30일 설립되었습니다. 건작연은 설립 이후 회원교회 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을 전개하고, 교회개혁 시민단체를 지원 협력하며, 건강한 작은 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 건작연은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과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함께 합니다. 건작연은 교회 간 공동체적 나눔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앞당기는 일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활동해 나갑니다.

1. 목적과 성격

O목적

_회원교회 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

_교회개혁사업 협력 및 지원

_개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O성격

_개교회의 자율성의 기초 위에서 긴밀한 협력사역을 추구하는 교회 연합

_회원교회의 확장을 통해 개혁교회 진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교회 연합

_개혁교회모델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한 교회 연합

_개교회주의를 넘은 협력사역의 시범을 위한 교회 연합

_목회자와 일반신도의 협력사역을 추구하는 교회 연합

2. 주요사업

O친목사업: 체육대회, 야유회, 합창대회, 연합수련회

O교육사업: 종교개혁기념세미나, 건강한 교회세미나

O사회복지사업: 시설봉사, 사회복지지원, 건강한 소비조장

O시민단체지원사업: 교회개혁 관련 기독시민단체 지원

○기타 대표자 회의에서 정하는 사업

3. 회원교회/단체(2018.4. 현재)

○회원교회(지역/담임목회자): 너머서교회(경기 일산/이헌주), 더작은교회(인천 부평/전영준), 더함공동체교회(인천 주안/권요셉), 새맘교회(서울 강서구), 아름다운양지교회(충남 아산/조석장), 예인교회(경기 부천/정성규), 언덕교회(서울 서초/박창훈), 징검다리교회(인천 불로동/유인환)

○회원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 방인성, 윤경아)

4.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reformingchurch

5. 임원단 및 실행위원회

○임원단: _운영위원장, 총무: 최우돈 장로[너머서] 6worldvis@hanmail.net/010-3177-8378
_회계: 김태완 목사[언덕] nimirock@gmail.com
_서기: 권요셉 목사[더함공동체]

○실행위원회:
강성일 집사[새숨], 권요셉 목사[더함공동체], 김성민 권사[너머서], 김태완 목사[언덕], 이태웅 장로[새맘], 전영준 목사[더작은], 정성규 목사[예인], 최우돈 장로[너머서], 황영수 집사[예인]

6. 소속 교회 및 단체 소개

너머서교회
beyondchurch.or.kr
이현주 목사 010-2889-0591

운영위원 이상오(위원장), 박강순, 이우정, 이은일, 장영미
목회자 이현주 목사
2018년 표어 바로 그 자리에서
너머서교회는 2008년 3월 30일에 설립되어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목표로 건강한 작은교회를 지향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예배장소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419 월스피아 5층 504호

더작은교회
cafe.daum.net/the-sc
전영준 목사 010-9818-5524

운영위원 김소향, 김세희, 김창수, 민봉순, 양 훈, 이광석
목회자 전영준 목사
2018년 표어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하기
모두가 더 커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하는 이때에, 우리는 왜 더 작은교회를 꿈꾸게 되었을까요?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커져있는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더 작아져야 합니다. 사람의 기대를 내려놓는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때, 그(THE) 작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인 못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보다 더 작은 교회..."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은 성도..."
예배장소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90-26 3층

더함공동체교회
withplus.org
교회 070-8245-1391

운영위원 신희성(위원장), 임세정, 장영수, 조성민, 정지연, 차일석, 황일진
목회자 권요셉 목사
2018년 표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
"단순함(simple) 작음(small) 더불어 함께(with)"
우리의 사명은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과 시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며,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배장소/사무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96-17 정명B/D 2층/지층

새맘교회
cafe.daum.net/semam2010
이병환 장로 010-3956-1910

운영위원 이태웅(위원장), 김행민, 김희진, 노창범, 박소래, 박종대, 서광용
목회자 이수연 전도사
2018년 표어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는 자기를 끊임없이 개혁하는 성도,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교회, 불의한 세상의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장소/사무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22길 38 교남학교 강당

새숨교회
saesoom.org
김형중 집사 010-6251-6343

운영위원장 김형중 집사
새숨교회는 성도 중심의 교회, 배우는 교회, 품어주는 교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직 정형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배장소/사무실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아파트 연회장

아름다운양지교회
cafe.daum.net/asan-church
교회 041-533-1885

운영위원장 이정준 집사
목회자 조석장 목사
성경본문을 설교하는 교회, 민주적 운영을 시행하는 교회, 교회개혁운동에 동참하는 교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교회의 외면적 성장보다는 내면적 성숙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모든 평신도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소그룹을 통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공동체로, 선교참여를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넓혀가는 선교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예배장소/사무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222

언덕교회
unduk.or.kr
박창훈 목사 010-3632-8573

운영위원 박종연(위원장), 김희병, 손종칠, 양환준, 유영재, 이승예, 이은이, 장승희, 정진옥, 조현일, 주재영, 황윤연
목회자 박창훈, 최종원, 김태완 목사
2018년 표어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언덕교회는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라는 목표로 4가지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성경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예배장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파고다타워 7층 대강당

징검다리교회
cafe.daum.net/jinggeomdari
교회 032-563-0191

목회자 유인환목사
"상식이 통하는 교회, 끝없이 개혁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마음을 치유하는 교회"를 목표를 가지고 성경의 가치로 세속 가치 극복 추구하며, 목양과 운영을 은사에 따라 나누며, 민주적 교회 운영을 시행합니다.
교회개혁, 특히 개교회주의 극복에 힘쓰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책임을 다하며, 건강한 분립으로 작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예배장소/사무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7-22(불로동)

예인교회
yein.org
교회 032-328-0692

운영위원 노경화(위원장), 강경애, 이현희, 임우섭, 정기환, 정성규, 황영수
목회자 공세환, 안태훈, 이정환, 정성규 목사
2018년 표어 세상을 위한 교회
예인교회는 2002년 7월 21일 설립되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이라는 모토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며, 약병의 그리스도인 회복과 민주적 교회 운영에 힘써 왔습니다.
아들랑을 중심으로 도시 속 작은 공동체를 지향하며, 성도 중심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전신자제사장을 구현하고, 주일 유휴시설활용, 지역사회 돌봄 등을 통해 최소한의 소비와 최대한의 공유를 지향합니다.
예배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5층
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44-4호 가나베스트타운빌딩 412호

교회개혁실천연대
protest2002.org
사무실 02-741-2793

공동대표 박종운, 방인성, 윤경아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뜻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2002년 11월 24일 창립된 단체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건강한 교회를 통한 사회개혁을 일구어냄으로 하나님나라 펼치며,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운동을 시행하며, 한국교회에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사랑으로 지적하는 비판운동과 한국교회의 건강한 구조 확립을 위한 교회대안을 제시하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에 힘씁니다.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CI빌딩 301호

[단체소개]

한국교회 회복을 소망하는

교회개혁실천연대

■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뜻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2002년 11월 24일 창립된 단체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건강한 교회를 통한 사회개혁을 일구어냄으로써 하나님나라를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운동**,
교회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는 **교회상담**,
한국교회에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사랑으로 지적하는 **이슈파이팅**,
정관/청빙/재정원칙 보급, 기독교 반성폭력운동 등 한국교회의 건강한 구조를 위한 **교회대안제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활동**,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하는 개혁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 주요활동

■ 2017년도 집중사업

2017
사업구조
구조개혁
• 민주적정관갖기운동
• 목회자청빙운동
• 교단개혁운동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육지원
• 찾아가는 제자훈련
• 강사 파견
현안대처
• 교회상담
• 이슈파이팅
• 교회세습반대운동
• 반성폭력운동
특별사업
•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
• 공적헌금운동
연대참여
• 전국네트워크
• 연대사업
조직운영
• 회원사업
• 회계관리

■ 2018년도 집중사업

2018 집중사업
교회상담을 강화하고,
교회분쟁 해결을 위한 지침서를
연구하여 발행하겠습니다.
교회상담
명성교회 부자세습
반대운동 등
교계 현안에 대해
더욱 발로 뛰겠습니다.
이슈파이팅
반성폭력운동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설립을 통해
교회 내 반성폭력운동을
하겠습니다.
공적헌금운동
헌금의 공공성과
실천사례에 대한
연속칼럼을
발행하겠습니다.

네! 저도 교회개혁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교회개혁운동은 비둘기 같이 순결한 마음과 뱀 같은 지혜를 지닌 이들이 힘차게 연대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복식부기를 실시하며, 매월 재정 결산 내용을 홈페이지와 개별 메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정관 29조 3항 의거). 귀하의 후원은 교회개혁운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과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절취선

이름		교회	
이메일		핸드폰	
하고싶은말			
참여방법	☐ 관심회원으로 가입하여 메일링 서비스를 받겠습니다. ☐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후원함으로 소식지와 메일을 받겠습니다. ☐ 자원활동으로 총회 참관활동, 피켓팅, 사진, 웹디자인 등을 돕겠습니다. ☐ 중보기도자로 지원하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체크하신 후, 절취하여 교회개혁실천연대 부스에 주십시오. 추후 전화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전화** 02-741-2793
- **팩스** 02-741-2794
- **이메일** protest@protest2002.org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CI빌딩 301호
- **홈페이지** www.protest2002.org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rchreform

[이교다 세미나 소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초대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이하 '이교다 세미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또는 '익명화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초대해 한국교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모색하고 공론하는 장이다. 이교다 세미나는 한국교회 내의 문제들로 제도적 교회를 떠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 문제들은 '교회의 교권사제주의', '목회세습', '물질지향의 기복신앙', '소통부재', '불투명한 재정운영', '무리한 건축', '사회참여 외면' 등이 있다. 이교다 세미나의 목적은 위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익명의 그리스도의 회복을 돕도록 관계 기관 및 건강한 교회를 연결시켜 주는데 있다.

이교다 세미나는 2004년 9월, 설립2주년을 맞이한 예인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공동체로 발돋음하기 위해 '제1회 교회다운 교회 세미나-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를 연 것이 시초였다. 오세택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영근 교수(아담재 대표)가 교회다운 교회의 성경적 이상, 성도다운 성도의 영성, 소통 가능한 교회구조 개선을 강의했다.

이후 2006년 11월, 제2회 세미나부터 5회까지는 예인교회가, 제6회부터 10회까지는 건강한작은교회연합(이하 '건작연')前개혁교회네트워크 소속교회들이 주관하며 학자와 언론인, 목회자 등 다양한 강사들(김종희 대표, 이만열 교수, 이의용 교수, 한완상 전총재, 손봉호 장로, 배덕만 교수, 박득훈 목사 등)의 교회구조개혁과 교인의식개혁을 위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로는 ① 교회개혁의 필요성, ② 교회분쟁 조정을 위한 정관 갖기, ③ 교회 건축 억제 및 건물 없는 교회 소개, ④ 무한교회성장이 아닌 교회분립의 필요와 실례, ⑤ 수직적 교회구조 개선을 통한 수평적 구조 형성 등이다. 또한 목회자 한 사람이 꿈꾸는 교회가 아닌 공동체가 수평적 리더십과 성도라는 큰 울타리에서 교회를 함께 꿈꿔 보기도 했다.

하지만 회차가 거듭되면서 이교다 세미나가 익명의 그리스도인보다는 건작연만을 위한 연례행사로 치우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9-10회 세미나에서는 교회개혁운동과 관련한 개인과 단체에 자문을 구하고, 교회구조개혁만이 아닌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 한 사람만이 꿈꾸는 교회가 아닌 성도가 함께 꿈꾸는 교회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적 교회공동체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적인 교회, 벽 앞에 서다'이다. '민주적'이라는 가치를 따라 성도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저마다의 이해와 이해도의 차이, 개인의 민주적 역량의 한계 등으로 크고 작은 긴장관계를 대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 거룩한 역동성이 상실되어가고, 환대와 손대접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세미나를 통해 건작연 교회 내외에 존재하는 '벽'에 대한 내부적 성찰과 외부적 시선을 공론화하고 고민을 나누며,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예인교회

Let's get together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87, 412호(상동, 가나베스트타운III)

■ 연락처 032)328-0692 ■ 홈페이지 www.yein.org

Copyright© 2002 예인교회 All Rights Reserved.

■ 건전한작은교회연합 실행위원 ■

강성일새숨 권요셉더함공동체 김성민너머서 김태완언덕 이태웅새맘

전영준더작은 정성규예인 최우돈너머서 황영수예인